

distraction osteogenesis는 1990년 Cesar Guerrero라는 구강외과의사에 의해 처음 성공적인 임상결과가 보고되었고, 그에 의해 이론이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임상 보고가 되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술식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자는 Mandibular symphyseal distraction osteogenesis를 이용하여 중증도의 총생을 동반한 제 1급 부정 교합을 치료한 증례 보고를 통하여 임상가로서 이 술식을 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 OP-9 구연

##### Self-ligation bracket을 이용한 빠르고 효과적인 교정치료

김 훈/바른이 치과의원

수십년 동안 많은 교정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간단한 치료 술식을 이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좋은 교정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많은 장치들이 개발되고 개선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결과로 급속교정, Skeletal Anchorage를 이용하는 교정 치료 술식 등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교정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장치는 역시 Brackets and Wires라고 여겨진다. Dr. Edward Angle과 Dr. Charles Tweed의 시대를 지나면서 주종을 이루었던 Standard Brackets에서 Dr. Larry Andrews가 소개한 Preadjusted Brackets으로 교정장치가 바뀌면서 교정 치료 개념과 방법들이 진일보하게 되었다. 더불어 wire들도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Nitinol Wire, TMA Wire를 거쳐 Heat-activated, Ion-bombarded Archwire와 같은 Superelastic Archwires가 출현하여 교정 치료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치아에 생리적으로 좀더 부드러운 힘을 제공하여 그 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통증 및 치근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치아 이동시 Brackets과 Archwires 사이에 생기는 마찰력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마찰력이 교정 치료시 중요한 고려 사항인 고정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Brackets과 Wires의 Surface Qualities, Brackets과 Wires사이에 적용되는 힘의 양, 결찰 방법 등을 마찰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최근에 개발되어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Self ligation Brackets은 Ligation의 편리함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으며 특히 마찰력의 문제를 현저히 개선시킴으로써 좀더 빠르고 효율적인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 동안 Self ligation Brackets의 사용을 통해 임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발견되었으므로 함께 나누고자 한다. 1. Time efficiency 2. Hygiene 3. Friction freedom 4. Interbracket flexibility

#### OP-10 구연

##### 심미적 교정치료를 위한 고려사항

김 영진/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치과교정과

교정치료를 받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중의 하나는 아름다운 안모를 가지려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저극히 주관적 일수도 있기 때문에 교정의사와 환자간에 충분한 communication이 선행되지 않으면 만족한 치료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이 치료목표의 설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치료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아름다운 안모에 대한 이해와 만족한 교정치료간의 상관관계는 보편적으로 교정치료가 안모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교정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환자가 교정 치료 후에 어떠한 형태의 안모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근간으로 치료의 최종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만족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겠다. 이번 presentation에서